



브레이크댄스로 올림픽 금메달 따 볼까

2024 파리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세계 톱클래스 한국 메달 전망 밝아 남자 50km 경보 제외...남녀 출전선수 성비 50-50 '완전 균형' 첫 대회

브레이크댄스가 2024 프랑스 파리 하계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8일(한국시간) 끝난 집행위원회에서 브레이크댄스,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등 4개 종목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에 포함하기로 승인했다. 브레이크댄스는 파리에서 올림픽 무대에 데뷔한다. 나머지 3개 종목은 내년 7월에 열리는 도쿄하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는 2018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하계청소년(유스)올림픽에서 브레이크댄스가 성공리에 치러진 점을 지켜 본 뒤 2024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에 넣자고 IOC에 제안했다. IOC는 젊은 세대를 올림픽으로 끌어들이고자 브

레이크댄스를 비롯해 전 세계 청소년들의 관심을 끄는 4개 종목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가했다. 우리나라의 댄스스포츠 실력은 세계 최정상급이다. 성인 올림픽 데뷔에 앞서 2018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하계청소년(유스)올림픽에서 김예리가 브레이크댄스 여자부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브레이크댄스는 2001년 독일에서 열린 세계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2005~2010년 세계를 호령하며 최전성기를 구가했다. 8일 개인, 국가별 브레이크댄스 세계랭킹 사이트인 '비보이랭킹즈'를 보면, 이 부문 전설로 통하는 흥텐(김흥열·35)이 개인 부문 2위, 우리나라 비보이그룹의 대명사 진조크루가 팀 부문 2위에 각각

올랐다. 국가별 랭킹에서도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2위를 질주한다. 국제대회에서 200차례 넘게 우승하고 각종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진조크루의 김현준(36) 대표는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메달권 입상은 충분하다"며 "국가대표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은 32개다. IOC는 또 올림픽 남녀 출전 선수 수에서 완벽한 성비 균형을 달성하고자 메달이 걸린 세부 종목 수를 도쿄올림픽의 339개에서 329개로 10개 줄였다. 아울러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 규모도 내년 1만 1000명 수준에서 600명 감소한 1만500명으로 제한했다. 도쿄올림픽에서 48.8%로 예상되는 여성 선수들의 출전자 비율은 파리올림픽에서 50%로 상승해 정확히 남녀 성비 균형을 이룬다. 역사적인 첫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

파리올림픽 종목 감소로 복싱과 역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두 국제연맹은 채무(복싱), 도핑과 횡령(역도) 혐의로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신뢰를 상실했다. IOC는 파리올림픽에서 역대 남녀 출전 선수 수를 120명으로 대폭 줄였다. 이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때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복싱 종목 출전자 수도 도쿄올림픽보다 30명 감소한 252명에 머물 예정이다. 인간 한계를 가능케 하는 끝판왕 종목인 육상 남자 50km 경보는 파리올림픽에서 볼 수 없다. 남자 50km 경보는 1932년 로스앤젤레스 대회부터 치러진 전통 있는 종목이다. 워낙 힘든 경기여서 남자 레이스만 존재한다. IOC는 남녀 성비 균형을 이루고자 파리올림픽에서 남자 50km 경보 종목을 빼고 혼성 종목으로 대체할 것이다. 남녀 혼성 종목 수는 도쿄올림픽의 18개에서 22개로 4개 증가한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첫승 언제'

부산시설공단에 25-32 패 강경민 3게임 28골로 득점 선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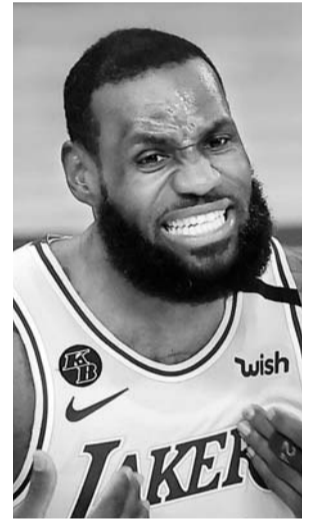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시즌 2패를 기록했다. 공격력은 리그 상위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탄탄하지만, 뒷단 단속이 허술한 탓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7일 충북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열린 2020-2021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1라운드에서 부산시설공단에 25-32로 졌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까지 2패1무를 기록했다. 강경민이 8점, 최지혜가 5점, 원선필이 4점을 넣으며 팀을 이끌었으나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반 9분엔 7-7 동점을 기록하는 등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선보였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는 부산의 주포 이미경의 파상공세를 차단하지 못하고 골키퍼 오사라의 선방에 공격이

막히면서 전반 24분께 11-19로 기선을 빼앗겼다. 부산의 주포 이미경은 11차례나 광주도시공사 골망을 흔들었고, 골키퍼 오사라, 주희는 45~47% 방어율로 광주도시공사를 봉쇄했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들어 강경민의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한때 21-26까지 점수차를 좁혔으나 승부의 물줄기를 돌리지 못했다. 시즌 3게임을 치르는 동안 광주도시공사 강경민은 28골로 개인 득점 1위에 올라 에이소로서 면모를 유지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수비보강이 시즌 초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3게임에서 76득점을 올렸으나 실점이 84점이다. 광주도시공사의 득점은 7일 현재 리그 1위인 삼척시청이 78득점, 3위 SK 슈가글라이더스가 78득점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실점은 리그 최하위인 인천시청(90점)에 이어 전체 8개 팀에서 두번째로 많다. 반면 리그 상위 3개팀은 실점을 70점대로 유지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임스 'SI 올해의 스포츠인' 사상 첫 3회 수상

오사카, 아시아 선수 최초 선정

'킹' 르브론 제임스(36·미국)가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스포츠일라스트레이티드(SI) 올해의 스포츠인으로 선정됐다. SI는 8일(한국시간) 제임스와 브리안나 스튜어트(26), 패트릭 머휴스(25·이상 미국), 로렌트 두버나이-타디프(29·캐나다), 오사카 나옴이(23·일본) 등 5명을 올해의 스포츠인으로 뽑았다고 발표했다. 제임스는 2019-2020시즌 미국프로농구(NBA)에서 LA 레이커스를 10년 만에 정상에 올려놓고,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1954년 제정된 이 상을 세 번 받은 것은 제임스가 사상 최다다. 제임스는 2012년과 2016년에 이어 최근 4년마다 SI 올해의 선수가 됐다. SI 올해의 선수에 2번 이상 뽑힌 선수는 제임스 외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5·미국)가 유일하다. 우즈는 1996년과 2000년에 이 상을 받았다. 스튜어트는 올해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르브론 제임스

에서 소속팀 시애틀 스톰을 우승시키며 역시 챔피언결정전 MVP에 선정된 선수다. 오사카는 올해 US오픈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우승자로 아시아 국적의 선수로는 최초로 SI 올해의 스포츠인에 이름을 올렸다. 머휴스와 두버나이-타디프는 미국 프로 풋볼(NFL)에서 올해 캔자스시티 치프스를 50년 만에 정상에 올려놓은 선수들이다. 두버나이-타디프는 특히 캐나다에서 의대를 졸업했으며 비시즌 기간 코로나19 관련 의료 지원 활동에도 나섰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축구 간판' 첼시 지소연 WSL 외국인 선수 첫 100경기 출전

한국 여자축구 간판 지소연(29·첼시)이 축구중가 잉글랜드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100경기 출전 기록을 세웠다. 지소연은 지난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킹스 메도우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2020-2021 잉글랜드 여자 슈퍼리그(WSL) 7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67분을 소화하며 팀의 3-2 승리에 힘을 보탰다. WSL은 이 경기 뒤 공식 트위터를 통해 지소연이 외국인 선수 최초로 WSL 100경기 출전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엠마 헤이스 첼시 감독은 "지소연은 세계 어떤 팀에서든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라면서 "그동안 보여준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그와 함께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KFA)도 8일 트위터를 통해 지소연의 기록 달성 소식을 전하면서 "자랑스러운 여자축구 에이스 지소연"이라고 적었다. 지소연은 2014년부터 8시즌 연속 첼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 팀에서 정규리그 우승 3차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우승 2차례 등을 이뤘고, 잉글랜드프로축구선수협회(PFA) 올해의 선수로도 뽑혔다. 올해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더 베스트 풋볼 어워드' 여자 최우수선수 후보에 올랐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여자 슈퍼리그(WSL) 외국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100경기 출전 기록 세운 지소연. /연합뉴스

시비옹테크,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1위

올해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챔피언인 이가 시비옹테크(19·폴란드)가 2020시즌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선정됐다.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는 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해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투표 결과를 전하며 "시비옹테크가 팬 투표 득표율 56.5%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시비옹테크는 세계 랭킹 54위로 출전한 올해 프랑스오픈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전 세계 테니스 팬들을 놀라게 한 19세 신예다. 그는 23.4%를 득표한 코리 코프(미국)를 따돌리고 생애 처음으로 'WTA 투어 올해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1위의 영예를 안았다. WTA 투어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부문은 2009년 제정됐으며 2009년 엘레나 데멘티에바, 2010년 마리아 샤라포바(이상 러시아)가 1, 2회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야그니에슈카 라드만스카(폴란드)가 6연패를 달성했고, 2017년부터 최근 3년간은 시모나 할레프(루마니아)가 이 상을 석권했다. WTA 투어 '올해의 샷' 부문도 폴란드 선수 차



이가 시비옹테크

지가 됐다. 마그다 리네테(폴란드)가 올해 2월 태국에서 열린 WTA 투어 GSB 타이완오픈에서 평사이(중국)를 상대로 구사한 대각선 포핸드 위너가 '올해의 샷'에 선정됐다. 평사이의 강력한 백핸드를 오른 쪽으로 뛰어가며 받아낸 것이 각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이웃사촌
2관	런
3관	미드나이트 스카이
4관	이웃사촌
5관	이웃사촌
6관	도굴
9관	도굴, 잔칫날
7관	씨네커플 런,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8관	씨네커플 더 프롬, 프리키 데스데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시간 속의 도시

2020. 12. 3.(목) ~ 2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잠자는 숲 속의 미녀

2020. 12. 18.(금) ~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선우예린 피아노 리사이틀

2020. 12. 30.(수)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즐거움 문화산책

미드나이트 스카이